

국가폭력에 찢긴 어미의 외침은 똑같더라

‘광주 어머니’ 앵글에 담은 김은주씨
아르헨티나 오월 광장 어머니 찾아
6월 3~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
미안마·이란 ‘현장’ 찾아 또 짐을 싣다



고문과 처형이 이뤄졌던 해군사관학교 담벼락에 붙어 있는 실종자의 모습.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르지만 그건 알 수 있었다. 늙은 어머니가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카메라를 잡고 있는 그녀는 감정이 북받쳤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오월 광장. 이제는 빛이 바랜 사진을 가슴에 품은 어머니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광장을 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기저귀로 만든 수건을 머리에 쓰고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반, 30년 넘게 계속되는 일이다.

서울 출신 사진작가 김은주씨는 지난 2011년부터 광주 오월 어머니들을 앵글에 담아왔다. 화순 너릿재, 전남도청 앞 등 남편이나 자식이 희생된 곳으로 어머니들을 데려가 그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다. ‘의식’을 치르듯 사진을 찍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담은 전시 ‘오월 어머니’는 광주, 안양, 부산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2014년에 5월 부상자 70여명의 인물 사진 작업을 마친 김 씨는 그해 9월 아르헨티나로 떠나 3개월간 머물렀다. 오월광장 어머니들을 앵글에 담기 위해서였다. 조명을 담당할 딸 이선민(24)씨와 함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1976년 3월 24일부터 1983년 중반까지 계속된 ‘추악한 전쟁’은 3만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낳았

고, 정치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어머니들은 ‘오월 광장 어머니회’를 조직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는 민주화 투쟁을 치르면서, 보호받아야 할 국가로부터 희생당한 어머니들이었다.

아르헨티나 촬영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일단 어머니들을 일대일로 만날 수가 없었다. 그 기간이 무려 한달이었다.

“한국에서 공문을 보내고, 제가 했던 광주 오월 어머니 작업 내용 등을 다 알리고 사진을 찍는 취지도 충분히 설명했는데 현지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체류 기간은 한정돼 있는데 미칠 지경이었죠. 광주사진전 내용을 보여주며 설득했지만 단체 사진이외 개인 사진은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광장에서 그냥 시위하는 모습을 찍을 수도 있지만 그건 기록 사진으로는 의미있을지 몰라도 ‘작품’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김씨는 광주 어머니들에게서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데도 오랜 시간을 걸렸던 사실을 기억하며 버텼다. 우선 광주 인권상 수상자이기도 한 ‘침묵에 항거하는 아들’ 딸들의 모임(H.L.J.O.S) 회원들부터 촬영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들을 ‘그 장소’로 데려갈 수 있었다. 시위가 벌어지는 광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수감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됐던 해군사관학교. 많은 시체가 버려졌던 ‘기억의 강’ 등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100m가 넘는 벽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던 모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자식 잃은 어머니의 외침은 다 똑같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뜻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처절한 울부짖음, 떨리는 목소리,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흐르던 눈물 등이 그대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의 삶을 이리 만들고 나의 아이를 데려갔는지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국가권력의 희생자들인 아르헨티나 어머니들은 광주의 어머니들과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슴에 아들 딸을 묻은 두 나라 어머니들은 결국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입니다.”

아르헨티나 촬영이 힘들었지만 김 씨는 다시 짐을 꾸릴 예정이다.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또 다른 곳의 어머니들을 촬영하기 위해서다. 그 곳 어머니들과 광주어머니들의 마음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광주’처럼 사전에 준비 과정에서 알았던 사실과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들은 이야기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 가려한다.

김 씨는 우선 지난번 촬영 때 거부 의사를 밝혔던 일부 광주 어머니들이 촬영을 허락해 줘 따라 추가 작업을 진행한 후 올해 미안마로 떠난다. 내년에는 2014 광주 인권상 수상단체인 이란의 ‘하바란의 어머니회’를 찾아간다.

김 씨는 광주와 아르헨티나 어머니들을 함께 선보이는 ‘Mothers’전(6월3일~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을 개최한다. 5·18 기념재단이 후원했으며 포토닷의 이달의 사진작가로 뽑혀 프린트를 지원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월 광장의 어머니-Acuna de Baravalle’

절망... 절박함... 열망... 새로움이 보였다

암 이겨낸 이명숙 작가
27일까지 금호갤러리
서울·미국 전시도 예정



‘Life fantasy’

서양화가 이명숙(59) 작가는 절망의 끝에 서고 나서야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했다.

작품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 되 살아났다. 그런 생각들은 투병 중에 있는 그녀를 다시 치열하게 붓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절박함이었다. 평생 작업을 하면서 그려왔던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치유를 얻었고, 병마의 터널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홍익대 미술학과와 미국 미시건대학에서 화인아트 전공한 이 작가가 병마와 싸우면서 작업한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미국과 서울, 광주에서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그녀의 첫 개인전이기도 하다.

지난 13~19일 서울 갤러리GMA

에서 전시를 가진 이 작가는 오는 27일까지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작품들을 전시한다.

미국 전시는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서니베일갤러리(Sunnyvale art Gallery)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LIFE FANTASY’. 이 작가는 이번 3차례 전시에서 매년 새로운 작품들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국내외에서 열리는 단체전에는 수차례 참여했는데 개인전에 대한 절박한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2009년 유방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하면서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창작에 매달렸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니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죠. 결국 암도 극복하게 됐습니다.”

/김경민기자 kki@

이 작가의 작품 주제는 ‘우주’와 ‘생명’이다. 우주와 생명의 역동적인 생성과 소멸에 관한 탐구 과정이다.

화폭에서는 생명의 최소 단위인 세포들의 움직임을 찾을 수 있다. 세포들은 화폭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또 다른 생명들을 만들어낸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빈 곳을 채우기도 한다.

그녀의 작품에서는 수채화의 느낌이 엿보이기도 한다. 묘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감을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서 생기는 이미지 등 우연히 생겨나는 형태를 통해 작품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이 작가는 “이 작업은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홀홀 털고 가소서

김덕숙 디딤무용단 ‘동고동락’ 25일 문예회관

한국무용계가 낳은 최고의 춤꾼, 우봉(宇峰) 이매방 선생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승무와 살풀이춤 인간문화재다.

이매방 선생으로부터 두 분야를 모두 이수한 춤꾼 김덕숙씨가 이끄는 디딤무용단이 오는 25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동고동락’을 주제로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 1부에서는 승무와 살풀이춤을 비롯해 땅자의 낫을 불러 부정을 가시게 하고 원과 한을 풀어 주어서 극적으로 천도하는 춤인 지전춤을 선사한다. 또 선비들의 내면세계를 춤사위로 표출시킨 남성적 기품의 춤인 사풍정강

(선비춤), 장고춤을 춘다.

2부에서는 드림(김희현)과 모듬북(김규형)의 협연으로 이뤄진 소고(나빌레라), 설장구(전통연희 굴렁쇠), 풍물판굿(풍물연희예술단 광대)과 옛 정취 풍겨지는 가세춤(김덕숙 디딤무용단) 등의 협연으로 무대를 장식한다. 한편 보성 출신인 김씨는 14세 때 춘담 김수악 선생을 사사하였으며 무용계에 입문했다. 1992년 제18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무용부문 장원을 시작해 2002년 제4회 장흥 가·무·악 전국대회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문의 010-6617-2021. /김미은기자 mekim@

사찰의 클래식 광제사 24일 사계 음악회

광주 양동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꽃보다 아름다운 절’ 광제사(주지 석두)에서 클래식 음악회 ‘우리들 맘에 꽃’ 등이 커지는 광제사 사계 음악회’가 열린다. 24일 오후 7시30분.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기획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사)무지크바울 챔버오케스트라가 출연, 친숙한 클래식 음악들을 들려준다. 지휘는 김태선씨가 맡았으며 소프라노 차선영, 테너 김관식씨가 찬조출연한다.

지난 1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씨를 초청, 이자이·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6개의 소나타 연주회를 가졌던 광제사

는 여름과 가을에도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로 창건 11년을 맞은 광제사는 기존 사찰과 다른, 예술적인 연등으로 유명한 절이다. 올해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등을 내걸었다. 공연 전 미리 도착해 뒷산에 올라 광주 푸르름을 즐겨도 좋다.

신도회에서 만든 사찰 도시락은 오후 6시부터 판매하며 간단한 차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문의 062-365-9955. 도시락 예약 010-2167-99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중주 합주	▲금상 1 이현영 외 46명(광주 교대광주부설초)	◇관악합주 초등부 ▲금상 1 유서영 외 27명(장수 번암초)	◇관악합주 초등부 ▲최고상 2 박세연 외 70명(광주 송원초)	▲금상 1 한지인 외 7명(광주 송원초)	◇현악중주 초등부 ▲금상 3 정지윤 외 10명(광주 송원초)	4 박현종 외 13명(살레시오초)	▲은상 1 안승현 외 7명(화순 이양초)	2 이강민 외 14명(알레	지오주니어악상블) ◇관현악중주 초등부 ▲금상 1 한다원 외 10명(광주 송원초)	홍승연(광주교대 교수) ◇중창 초등부 ▲금상 2 정유정 외 9명(광주 송원초)	1 문근영 외 56명(광주 송원초) 2 정지현 외 53명(광주 교대광주부설초)	◇합창 초등연합 ▲은상 1 강혜연 외 27명(리베 합창단)
--------------	--------------------------------	---	--	---------------------------	---	--------------------	---------------------------	----------------	---	--	--	--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진, 동, 신, 대, 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 중앙초교 ● 금남로

KT ● 중앙초교 ● 금남로

KT ● 중앙초교 ● 금남로